

Ⅱ. 『경향잡지』로 보는 본당

시간적범위:1921년부터 1999년까지

공간적범위:논산본당(논산 부창동성당)

■ 『경향잡지』 1922년 3월호(단행본 490호) p.143

〈원문〉

○ 三位神父移轉屆

沈應榮은서산군음암면상흥리에서경성부원정사정목으로,경원선은당진군합덕면합덕리에서경성부명치정이정목으로,황혜중은공주군공주면본정에서논산군논산면옥정으로이전한지를모다일월십일에계출한다.

〈번역〉

○ 삼위신부이전계

심응영(폴리)은 서산군 음암면 상흥리에서 경성부 원정 4정목으로, 경원선(크렘프)은 당진군 합덕면 합덕리에서 경성부 명치정 2정목으로, 황혜중(루블레)은 공주군 공주면 본정에서 논산군 논산면 옥정으로 이전한지를 모두 1월 10일에 신고(계출)하다.

■ 『경향잡지』 1922년 4월호(단행본 492호) p.178

〈원문〉

◎ 부주교환담

치명스적을도사하시기위하야거월二十일에발당호신유부주교각각하는대구,론산,익산,군안대동,전주,김제군슈류,영읍군신성리,다시론산,대면으로말·1미암아본월十일에안녕히환담호셨더라

〈번역〉

◎ 부주교 환담

치명사적을 조사하기위해 지난달 去月 20일에 길을 떠나신 發程 유 부주교 각하는 대구, 논산, 익산군 안대동, 전주, 김제군 수류, 정읍군 신성리, 다시 논산, 대전으로 말미암아本月 10일에 안녕히 환담하셨더라.

■ 『경향잡지』 1922년 9월호(단행본 501호) p.408

〈원문〉

姜黃兩神父移轉

全北全州郡雲仙面升峙里姜達淳은 益山郡望城面華山里로移轉 訖 日 月 六 八 日 에, 忠南論山郡論山面旭町黃惠中은 同郡恩津面海倉里로移轉 訖 日 月 七 十 四 日 에 届 出 訖 다

〈번역〉

강달순(카타르), 황혜중(루블레) 양 신부 이전

전북 전주군 운산면 승치리 강달순은 익산군 망성면 화산리로 이전한지를 6월 8일에, 충남 논산군 논산면 옥정 황혜중은 같은 군 은진면 해창리로 이전한지를 7월 14일에 제출(신고)하였다.

■ 『경향잡지』 1923년 9월호(단행본 526호) p.432

〈원문〉

各担任者届

… (중략) …

論山郡恩津面海倉里論山天主堂은 同地孔安世가

… (중략) …

担任 訖 日 月 各~ 届 出 訖 다.

〈번역〉

各担任者届

… (중략) …

논산군 은진면 해창리의 논산천주당은 같은 지역의 공베르(공안세) 신부가

… (중략) …

단임 한지를 각각 신고(계출)하다.

■ 『경향잡지』 1924년 2월호(단행본 536호) pp.45~46

〈원문〉

◎ 자선심과 권면하기에 열절한 부인

논산군은진면용산리박모니가부인은수백원을드려성당에종을받쳤거니와그딸과
스외가아직귀화치아님을원통히녁여항상권면하기를천주-너업시너를내셨스나너업시
너를구하지아니하시니니라 이세상은잠깐이오후세는영원하니부디천주를공경하여라
내말을듣지아니하면자식이라할수업다하며항상권하여도그스외는죽을때에나봉교하
기로밀외다가불행히병이들어의약이무효한지라조그빙모의권면하던말을싱각하고즉
시회장을청하여디세를타당히받고선송하였스매그아들四형제합十여명가솔이열심으
로연도하여장례를지내고하는말이우리부친을천당에가서상봉하려면열심으로봉교하
여야하리로다하고부지런히경문과문답을배운다하니바빠예비하여성세를받으면천당에
먼저간부친이즐거워하고사후는온집안이천당에모여영원동락하리로다

〈번역〉

◎ 자선심과 권면하기에 열절한 부인

논산군 은진면 용산리 박 모니가 부인은 수백원을 들어 성당에 종을 받쳤거니
와, 그 딸과 사위가 아직 귀화치 아님을 원통하게 여겨 항상 권면하기를 “천주-너 없
이 너를 내셨으나 너 없이 너를 구하지 아니하시나니라. 이 세상은 잠깐이오. 후세는
영원하니 부디 천주를 공경하여라.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자식이라 할 수 없다”하며
항상 권하여도 그 사위는 죽을 때에나 봉교하기로 미루다가 불행히 병이 들어 의약이
무효한지라. 자기 빙모의 권면하던 말을 생각하고 즉시 회장을 청하여 대세(代洗)를 타
당히 받고 선송하였으며, 그 아들 4형제 합 10여명 가솔이 열심으로 연도하여 장례를
지내고 하는 말이 “우리 부친을 천당에 가서 상봉하려면 열심으로 봉교하여야 하리로
다”하고 부지런히 경문과 문답을 배운다하니 바빠 예비하여 성세를 받으면 천당에 먼
저 간 부친이 즐거워하고 사후는 온 집안이 천당에 모여 영원동락하리로다.

▪『경향잡지』 1927년 10월호(단행본 623호) pp.449~450

〈원문〉

◎ 대던성당강복식

대던군, 외남면, 방축리(경부선대던역부근)본당황신부주는발서브터성당건축을시작하야다행히필역된지라 금월三일에원부주교각하께서대례로강복식을거행하셧는디론산공신부, 공주최신부 량위도리림하야참예하시고허다한교우들도즐거운마음으로참예하엿더라 그본당과성당위치는높은산상에잇스매경치가미우도흐며 기차를타고서울서부산까지가는역로에차에안자셔반가히바라볼만한성당은아마이성당하나뿐이되리로다

〈번역〉

◎ 대전성당 강복식

대전군 외남면 방축리(경부선 대전역 부근) 본당 황 신부는 벌써부터 성당건축을 시작하여 다행히 필역 畢役 된지라. 금월 3일에 원 부주교 각하께서 대례로 강복식을 거행 하셨는데, 논산 공 신부, 공주 최 신부 양위 도래 임하여 참례하시고 허다한 교우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참례하였더라. 그 본당과 성당 위치는 높은 산 상에 있으며, 경치가 매우 좋으며, 기차를 타고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 역로에, 차에 앉아서 반가히 바라볼 만한 성당은 아마 이 성당 하나뿐이되리로다.

▪『경향잡지』 1928년 7월호(단행본 642호) pp.320~322

〈원문〉

◎ 황신부주략전

황신부주의선종하신부고는거번잡지에게적하엿거니와 그선종하시기전마지막으로서울서받은쇼식은병세가중하야미사도드리지못하시고 병상에서봉성테까지하시다가그후적이차도가잇서 스가에서미사를드리신다하더니 본월十一일아침에바리던보를밧아그선종하신부음을반포하엿도다 그림종시의주세현쇼식은아직도법국에서편지오기를기다리거니와그략전은이아래와갓도다

헨으리고황신부주는법국라쉬르현싱, 쓰레제, 뒤, 달스디방에서一八七六년六月二十九일에탄생하샤 伍세브터본향에서공부를시작하야十二세에쇼학교를졸업하시고 一八八七년브터一八八九년까지는밀호중학교를졸업하시고 一八八九년브터一八九四

년까지는싱, 아프리카중학을졸업하셨더라

외교나라에가서불상헌령훈들을구할원의근절하야 一八九四년부터는바리경에서 一八九六년까지철학을공부하야졸업하시고一八九六년十月六일에바리외방전교회신학원에입학하야 신학과성학을다졸업하신후一九〇〇년六月二十四일에탁덕성품을받으신후조선전교신부로차당되셨더라

一九〇〇년에스랑헌온부모와형제와친척을하직하시고 고국산천을떠나수개월동안슈륙험로를무스발섭하샤그히十月九일에조선에도착하시니 이는곳돌직고향이라이곳에서온전헌심명을회심삼아턴주의영광을드러내고만흔사람의령훈을구하셨도다

조선어를힘써연구하신후一九〇一년에경기도기성에첫본당신부로차당되샤경기도여리고을과황해도연백등디에근十年동안전교하시다가一九〇九년에는공주본당신부로전임되샤충북여리고을에전교하셨고 一九一四년에대전·1정이니러나매 본국동원령에소집되어伍년간지리하고위험한전장에서병들고혹부상한군인들을지성으로치료하며간호함으로훈장까지받으시고 一九一九년에전정이곳치매즐거운모임으로다시조선에도라오셨더라

一九二一년에는충남론산지방신부로차당되셨다가 一九二三年에룡산예수성심신품학원신수로영전되샤신성들의게철학을교수하시다가 그익년一九二四년에대던지방으로전임되샤천신만고중에대던산상에화려한성당을건축하셨스나 오릭동안이새성당을누리지못하시고 턴국성당을발서누리기시작하셨스니 누구든지이대던성당을쳐다볼새마다황신부를기억하야영영한기념을삼으리로다

선종헌신신부주의본병은양어로스쓰루라하는 병인디 도모지식물이쇼화되지못하고 그저식도로지나가기만하는 고로 흥상쇼화불량과결샤가나셔주연파리하게만하는지라 조선에서와청국에서치료하여도효험이업는 고로법국에가서치료하시니또한차도를잊지못하샤여러히동안지극한고통을받으시다가주의품에선종헌샤그열절한령훈을턴주디전에받치셨도다 조선에전교하신지二十八년이오츄츄伍十二세러라 일반교우제씨와특별히황신부씨성수와교훈을받으시던교우제공은열심기구하시기를다시근청하노이다

망자-평안함에쉬여지이다 아멘

〈번역〉

◎ 황 신부 주 약전 略傳

황 신부 주의 선종하신 부고 訃告는 지난번 去番 잡지에 게재하였거니와, 그 선종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서울서 받은 소식은 병세가 중하여 미사도 드리지 못하시고, 병상에서 봉성체까지 하시다가 그 후 적이 차도가 있어, 사가에서 미사를 드리신다하더니, 본월 11일 아침에 파리 전보를 받아 그 선종하신 부음을 반포하였도다. 그럼 종시의 자세한 소식은 아직도 법국에서 편지오기를 기다리거니와 그 약전은 이 아래와 같도다.

헨리코 황 신부 주는 프랑스 라새르현 생 브레제 뒤 달스지방에서 1876년 6월 29일에 탄생하시어, 5세부터 본향에서 공부를 시작하였고, 12세에 소학교를 졸업하시고 1887년부터 1889년까지는 밀호중학교를 졸업하시고, 1889년부터 1894년까지는 생 아프릭 중학을 졸업하셨더라. 외교 나라에 가서 불쌍한 영혼들을 구할 원의 간절하여, 1894년부터는 파리경에서 1896년까지 철학을 공부하여 졸업하시고 1896년 10월 6일에 파리의방전교회 신학원에 입학하여 신학과 성학을 다 졸업하신 후 1900년 6월 24일에 신부(탁덕) 성품을 받으신 후 조선 전교 신부로 차정되셨더라.

1900년에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와 친척을 하직하시고, 고국산천을 떠나 수개월 동안 수륙험로를 무사발섭하시어 그해 10월 9일에 조선에 도착하시니 이는 곧 둘째 고향이라. 이곳에서 온전한 생명을 희생삼아 천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하셨도다.

조선어를 힘써 연구하신 후 1901년에 경기도 개성에 첫 본당신부로 차정되시어, 경기도 여러 고을과 황해도 연백 등지에 근 10년 동안 전교하시다가 1909년에는 공주본당 신부로 전임되시어 충북 여러 고을에 전교하셨고, 1914년에 대전쟁³²⁴ 일어나며 본국 동원령에 소집되어 5년간 지리하고 위험한 전장에서 병들고 혹 부상당한 군인들을 지성으로 치료하며 간호함으로 훈장까지 받으시고, 1919년에 전쟁이 그치며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조선에 돌아오셨더라.

1921년에는 충남 논산지방 신부로 차정되셨다가, 1923년에 용산 예수성심신품학원 신사로 영전되어 신학생들에게 철학을 교수하시다가 그 익년 1924년에 대전지방으로 전임되시어 천신만고중에 대전 산 위에 화려한 성당을 건축하셨으나, 오랫동안 이 새 성당을 누리지 못하시고 천국 성당을 벌써 누리기 시작하셨으니, 누구든지

이 대전성당을 쳐다볼때마다 황 신부를 기억하여 영영한 기념을 삼으리로다.

선종하신 신부 주의 본병은 양어로 ‘르스쓰루’라하는 병인데, 도무지 음식물이 소화되지 못하고 그저 식도로 지나가기만 하는 고로, 항상 소화불량과 설사가 나서 자연파리하게만 하는지라. 조선에서와 청국에서 치료하여도 효험이 없는 고로, 프랑스(법국)에 가서 치료하시나 또한 차도를 얻지 못하시어, 여러해동안 지극한 고통을 받으시다가 주의 품에 선종하시어 그 열렬한 영혼을 천주대전에 받치셨도다. 조선에 전교하신지 28년이오, 춘추 52세러라. 일반 교우 제씨諸氏와 특별히 황 신부께 성사와 교훈을 받으시던 교우 제공은 열심기구하시기를 다시 간청하나이다.

망자-평안함에 쉬어지이다. 아멘

■ 『경향잡지』 1928년 9월호(단행본 646호) pp.418~419

〈원문〉

◎ 본당신부를참으로스랑하느표양

헨느리고황신부주의선종과장례의소식은루츠게지헛엇거니와 황신부쥬-스랑하
시며돌보시던대던디방교우제씨는경이헛올본당신부를그병고로인헛야루만리타국에
슬피작별헛후 금세에서다시상봉치못헛고턴국본향에로작별헛엇더라

그디방교우제씨는다가난헛쳐디임을불구헛고 선종헛신분당신부를위헛야드린바
런미사는四十二디인중 후헛레물노써대레미사도여러디드리고 쏘특별히감동되고아름
다운것은 유치헛동남동녀들이멋픈식슈합헛아미사를드림이오 대던본디방교우뿐아
니라 론산디방에서도황신부쥬를경외헛던교우들이여러디미사를대구교구신부씨도드
렸더라 황신부쥬-일심을희성삼아교우들을구령길노인도헛시던공로와스후턴국에서
전달헛시는은혜로신문교우도만헛니 실노아름답도다 신부신주잔정의가성시와스후
에여일함이여 이후영원헛본향에서다함씩상봉헛리로다

〈번역〉

◎ 본당신부를 참으로 사랑하는 표양

헨리코 황 신부 주의 선종과 장례의 소식은 누차게 재하였거니와, 황 신부 주-사
랑하시며 돌보시던 대전지방 교우 제씨諸氏는 경애하는 본당신부를 그 병고로 인하여
만리타국에 슬피 작별 한 후 금세^{금세}에서 다시 상봉치 못하고 천국 본향에로 작별하
였더라.

그 지방 교우 제씨는 다 가난한 처지임을 불구하고 선종하신 본당신부를 위해 드린바, 연미사는 42대인중 후 한 예물로써 대례미사도 여러대 드리고, 또 특별히 감동되고 아름다운 것은 유치한 동남동녀들이 몇 푼씩 수합^{收合}하여 미사를 드림이오. 대전지방 교우뿐 아니라, 논산지방에서도 황 신부 주를 경외하던 교우들이 여러대 미사를 대구교구 신부께도 드렸더라. 황 신부 주-일생을 희생삼아 교우들을 구령^{救靈}길로 인도하시던 공로와 사후 천국에서 전달하시는 은혜로 신문교우도 많으니, 실로 아름답도다. 신부, 신자 간 정의가 생시와 사후에 일함이어. 이후 영원한 본향에서 다함께 상봉하리로다.

■『경향잡지』 1933년 6월호(단행본 760호) pp.280~281

〈원문〉

◎ 강경나바위성당에성체거동 정읍 고신부

나바위성당에서는 년리의숙망이던 성체거동을 지난六월十八일에 성대히거행하였는디 참렬자의一인으로 그대략의상황을소기하건대 오전八시반에 전주김감목대리의주례아래 원근지방에서참석하신 八위신부와 각디련합성가대의 웅장유량한합창으로 대미사가 시작되였다

… (중략) …

각각단체기를압장세운 론산 전주 퇴직 군산기타각지방에 수十남녀단체가 질서정연하게 탈모합장의 경건엄숙한태도로 뒤를 니었는디 … (이하 생략)

〈번역〉

◎ 강경 나바위 성당에 성체거동(정읍 고 신부)

나바위성당에서는 연래의 숙망이던 성체거동을 지난 6월 18일에 성대히 거행하였는데, 참렬자의 1인으로 그 대략의 상황을 소개하건대 오전 8시 반에 전주 김 감목 대리의 주례 아래 원근 지방에서 참석하신 8위 신부와 각지 연합성가대의 웅장유량한 합창으로 대미사가 시작되었다.

… (중략) …

각각 단체기를 앞장세운 논산, 전주, 퇴재, 군산 기타 각 지방에 수십남녀단체가 질서정연하게 탈모합장의 경건엄숙한 태도로 뒤를 이었는데 … (이하 생략)

■ 『경향잡지』 1934년 4월호(단행본 780호) p.214

각처에령세자

이번예수부활대침례에 각처에서령세한자의수는 전호에도 기재하였거니와 추후로 보도된바에의하면 다음과갓다고한다.

합덕 一〇명, 송정리 六명, 룬산 一伍명, 청진 三三名, 회령 一伍명, 옥천 三名, 양양 一〇명

■ 『경향잡지』 1940년 11월호(단행본 928호) p.281

경성교구에주교순시

경성원주교각하께서는 금十一월여러지방을 순시하시며 견진성사를 행하신다는바 각지방에 주교내림일자는 九일안성읍, 十二일 장호원, 十四일 청안, 十六일 대전, 十八일 룬산, 二十일 금사리, 二十二일 서천, 二十四일 서산이라하며 二十六일에는 환당하시리라한다.

■ 『경향잡지』 1941년 4월호(단행본 933호) p.90

경성예수녀작복식

경성마오로수녀원에서는 거三월二十伍일 성모영보침례날오전六시반 동원성당에서 원주교각하의 집전으로 착복수녀들의부모친척과 내빈신부들이 열심으로기구하는중 엄숙한착복식이 거행되었는데 수도성복을바더 신입수녀반열에드른자의 수도본명과 그전본명과 본적지교회는 아래와갓다한다.

수도본명	재속성본명	분당
안드레아수녀	리누시아	진남포
알렉산드라수녀	안헤르미나	수원왕림리
요세파수녀	리골리타	서산
안또니오수녀	서안나	괴산
유리아나수녀	최수산나	경성
젼마수녀	민요안나	매화동
엠마누엘수녀	박아나다시아	평택

오딜리아수녀	조아가다	약현
베아드릭스수녀	김세군다	논산
알벨다수녀	방누시아	약현
암브로시오수녀	김테레사	논산

■『경향잡지』 1941년 7월호(단행본 936호) pp.153~154

경성교구에 신부이동

경성교구에신부이동은 거六월二十伍일에 발표되었는데 그에의하면 … (중략) …
방지거박신부는 논산본당보좌로 각각 임명되었스며 … (이하 생략)

■『경향잡지』 1942년 6월호(단행본 947호) p.46

거 伍월하순 경성교구에신부이동이발표되었는데 그에의하면 … (중략) … 논산
본당보좌 방지거박신부는 동주임신부로 승격되는동시 전주임 공신부는 신병으로 경
성본부에서 휴양하게되었스며 … (이하 생략)

■『경향잡지』 1942년 10월호(단행본 951호) p.78

◎「경성교구에교구장순시일자」

경성교구 오가모도교구장께서는 관내교우들의 충후보국의실상과 각교회형편을
시찰하시는동시에 견진예비자들에게는 견진성사를 영하여주시기위하여 총력연맹이
사장 남현씨를 동반하시고 경성교구일부를 순시하시기로되었는데 이번순시하시는
지방과 그지방에 도착하시는일자는 아래와갓다.

十월二十伍일 경성약현, 二十六일 대전, 二十七일 공주, 二十九일 논산, 三十一
일 부여, 十一월二일 서산, 四일 당진, 伍일 합덕, 七일 예산, 九일 공세리, 十一일 천안,
十二일 환당

■『경향잡지』 1944년 3월호(단행본 968호) p.22

◎「논산교우들의정성」

갈멜수녀원에서 동수도회의 근본 취지대로 날마다 만흔히 생과 기구로써 성교
회를 도읍는다는말을듯고 크게 고맙게 생각하는동시 지금갓흔 시국에 본방인 교구가

됨으로부터는 그들의 들어나지않는 협력이 더구나 필요할것이라하여 자발적으로 一백二十원을 동원에 연조하여 살림에 붓아야쓰기를 청하였으므로 동원에서도 감사함을 마지안는다 한다.

■『경향잡지』 1944년 11월호(단행본 973호) p.91

◎「경성교구에신부임명και동」

경성교구에 새신부의 임명이 발표된바 그에의하면 … (중략) … 원선시오 조신부는 충남 논산읍본당으로, 베드루 김신부는 황해도연안읍본당으로, 시몬리신부는 경성약현교회보좌로 각々 임명되고 전논산본당 요셉황신부는 하우현본당으로, 전대전본당 비리버김신부는 충북증평본당으로 각々 전근되엇다한다.

■『경향잡지』 1946년 12월호(단행본 981호) pp.68~69

○ 중학교 증설

작년가을 경인선부평역전에잇던 소화고녀는 그설립자 인천교우 장광순씨부친의 유언에의하여 六十만원재단과함께 천주교회로 인계되어 박문여자중학으로 새출발을 하였고 금년에드러서 경부선왜관역전성당내 소화학원은 당지본당신부와 유지교우들의 열성으로 순심여자중학으로 승격되엇으며 대구에는 서병조씨 伍十만원 이효상씨 十伍만원 김인석씨 伍만원 기타 유지교우들의 열성으로 그전신학교교사를 이용하여 대건중학교가 창설되엇고 충남논산교회내에도 대건중학교가 설립되엇으며 서울에 동성상업은 동성중학으로, 계성여자상업전수학교는 계성여자중학으로 각々 개편되어 정식으로 인가를바뎠고 약현교회내에는 야간^{夜間}성심중등학교가 새로 설치되엇다.

■『경향잡지』 1946년 12월호(단행본 981호) pp.73~74

… 금년초에 신학교교장 금구장신부가 안성, 합덕, 당진, 서산, 공주, 논산, 청주, 장호원, 갯등이 등지를 편역할새 동교장으로부터 신학교에대한 이야기를 대강뎛고 깎히 깨다른바잇서 이상각지방 유지교우들이 의연한바를 모두합하면 약伍만원가량 되고 … (이하 생략)

■『경향잡지』 1947년 1월호(단행본 982호) p.12

논산에 음악회

충남논산읍교회에서는 동교회내에 신설된 대건중학교를 후원하는 의미로 거
十二月十八일경 서울악현 가톨릭합창단을 초빙하여 당지 극장에서 음악회를 개최하
였는데 장내는 회회매번 초만원에 이루어 음악회로서는 논산에서 처음보는 성향을
이루었다한다.

■『경향잡지』 1947년 5월호(단행본 986호) p.76

답지하는 연길교구구제금

천주성교회는 여러지체가모여 한몫을 이룬것인만큼 다른지체가 당하는것은 남
의일이 아니오 바로자기몸의 일로서 자기가 당한것이나 다름없는것이다. 이도리를
잘아는 각처유지 교우들이 연길교구의 참담한 소식을듯고 다음과갓히 그구제금을 다
토아 본사에 기탁하였다.

... (중략) ...

논산지방 伍천伍백七十원二十점 ... (이하 생략)

■『경향잡지』 1947년 6월호(단행본 987호) p.92

연길교구구제금

연길교구의 참담한 소식을 드른 각처유지교우들은 계속하여 동교구구제금을 본
사에 기탁하는데 伍월二十三일까지 본사에 들어온것은 다음과 같다.

... (중략) ...

장항지방하담공소 一천원, 장항읍교회 一천원, 경남하동공소 一천원, 하우현지
방 九백二十원, 공주하마루공소 七백원, 신탄진공소 伍백원, 청주읍교회 伍백원, 익명
씨 伍백원, 공주 조아가다 회색인조 옥양목 각四마, 동 신분다 伍백원, 또 명주솜저고
리바지 一습, 동변마리아 유수산나 각 백원, 예산남누수 二백원, 논산지방 二백三十
원, 남곡리교회 二천원

■『경향잡지』 1947년 6월호(단행본 987호) p.92

공주 근화유치원 율동회

공주읍교회에서 경영하는 근화유치원에서는 거 伍월 一일 개원 一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四월 二十六, 七양일 저녁에 공주극장을 빌려 개원一주년 축하유희회를 개최하였는데 천진하고 귀여운 七十여명 어린이들의 二十여종이나되는 노래와 유희는 초만원에 이룬 관객의 박수갈채를 몇 번이고 받았으며 동시에 논산대건중학교악대와 공주교회방울새합창단과 공주四개국민학교 학생의 찬조출연까지있어 더욱 이채를 띠었다한다.

공주읍교회는 해방이후 가톨릭청년회와 성모자비회가 일치단결하여 유치원을 적극적으로 도아줄뿐아니라 전교방면에 특히 주력하여 예비교우가 점차로 많아진다 하니 당지 황새바위에 치명자들의 흘린 피가 이제 꽃피기 시작하는 모양이다.

▪『경향잡지』 1947년 12월호(단행본 993호) p.185

(一, 二품 十四人) 김마지아 영등포, 김분도 약현, 박바오로 I 논산, 김요셉 전주교구 구제리, 박야고버 언양, 정베드루 영천, 김알로이시오 함안, 김바오로 신계, 이야고버 남곡리, 신요셉 합덕, 황베드루 수원, 임요안 은률, 박이시도로 이천, 박바오로 II 원주

▪『경향잡지』 1948년 1월호(단행본 994호) p.12

연길, 덕원, 구제금

겨울의 혹한을 실제 체험하면서 연길, 덕원 모든 주교신부와 수도자들이 당하는 곤난을 생각하여 지난달 본사에 기탁된 구제금은 다음과 같다. … (중략) … 논산지방 二천원, 당진읍교회 三천三백九十伍원, 밀양군 죽월리 김진근 三백원.

▪『경향잡지』 1948년 1월호(단행본 994호) p.17

영수된 현양회비

- 특별회비 -

… (중략) …

(논산)김마지아 一백원, 한테글라 伍十원, 이세시리아 一백원, 박도마 伍十원,朴요안 伍十원.

■『경향잡지』 1948년 2월호(단행본 995호) p.28

본잡지보급에 협력하는 형매들!

본잡지 거년十二월호와 금년一월호에 실린 사설을 숙독하고 분연히 일어나 협력하는 교형자매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지금(一월二十三일)까지 본지 독자는 일약一천여명이 더 늘었는데, 협력하는이들중 성적이 현저한것만 든다면, 수원읍 가톨릭 청년회는 二十부에서 伍十부로, 안성읍은 二十伍부에서 六十七부로, 서산읍 四十八부에서 八十一부로, 인천성모회는 四十伍부에서 七十부로, 영등포 一백부에서 一백四十四부로 각々 증가되고, 기타 용산 二十부, 개성 三十一부, 장호원 二十부, 합덕 청년회 四十부, 논산읍 二十四부가 각々 증가되었다. 이외에 안성읍에서는 매월 「가톨릭青年」지 一백부식을 주문하여 주로 외교인행들의 보급을 위하여 약간의 노력을 애끼지 않는다면 조선가톨릭의 앞길은 든든하고 빛날것이다.

■『경향잡지』 1948년 4월호(단행본 997호) p.59

연길, 덕원, 구제금

도탄중에 빠져있는 연길, 덕원교구를 위하여 거월 본사에 기탁된 구제금은 다음과 같다.

… (중략) …

전북 화산교회 二천원, 논산 박도마 一천원, 논산지방 갈매울公所 三천四백十원

… (이하 생략)

■『경향잡지』 1948년 4월호(단행본 997호) p.60

허시로 신부 임경

본잡지二월호 「동북 연길지방 종교박해진상」난에 허다한 고난을 당하였다고 보도된 연길교구 허신부는 도중에서 많은 곤난을 당하면서 거三월一일 서울에 도착하여 휴양한후 동월하순 논산으로 향하였다. 당지 교회와 대건중학의 사무를 도으리라 한다.

한편 연길수녀원 조선인 수녀들도 하나식-거의 전부 남조선으로 나와, 청주교회에서 경영하는 보육원 聖心救護院에 十여명이 봉사하고 있는중이다.

■『경향잡지』 1948년 4월호(단행본 997호) p.61

성심원의 은인들

서울 서빙고역 건너편 잠실리에 있는, 약현교회의 경영인 남자아동 보육인 聖心園은 그동안 재정상 곤란을 받아오던중, 동원장 시몬이신부의 활동으로인하여 부여, 서천, 장항, 논산, 화산, 군산등지의 유지교우들로부터 의연한 금액이 약伍만二천원에 달하므로 동원에서는 감사하여 마지않는다한다.

■『경향잡지』 1948년 5월호(단행본 998호) p.64

만대에 빛나는 우리조선 순교자들을 현양하자!

[회비]

통상회원 一年伍拾원 이상, 특별회원 一年伍백원이상, 유공회원단변에 伍만원 이상

... (중략) ...

조선천주교순교자현양회 목적달성과 동회 「특별회원」 「유공회원」 생사자를 위하여
四월二十일 미사성제를 봉헌하였나이다.

논산 시로 허신부

... (이하 생략)

■『경향잡지』 1948년 7월호(단행본 1000호) p.96

조선 천주교 순교자 현양회 미사

[현양회 회비]

통상회원 一年伍十원 이상, 특별회원 一年伍백원이상, 유공회원단변에 伍만원 이상

통상, 특별, 유공회원 위하여

조선천주교순교자현양회 목적달성과 동회 「통상회원」, 「특별회원」, 「유공회원」 생
사자를 위하여 伍월九일 미사성제를 봉헌하였나이다.

논산 趙新부

… (이하 생략)

■ 『경향잡지』 1948년 8월호(단행본 1001호) p.124

연길, 덕원 구제금

그동안 거월二十伍일까지 환란중에있는 연길교구와 덕원교구를 위하여 본사에
위탁된 구제금은 다음과 같다.

… (중략) …

논산 교회 一천二백十원… (이하 생략)

■ 『경향잡지』 1948년 9월호(단행본 1002호) p.128

조선 천주교 순교자 현양회 미사

[현양회 회비]

통상회원 一년伍十원 이상, 특별회원 一년伍백원이상, 유공회원단번에 伍만원
이상

… (중략) …

조선천주교순교자현양회 목적달성과 동회 「통상회원」, 「특별회원」, 「유공회원」 생
사자를 위하여 八월二十六일 미사성제를 봉헌하였나이다.

논산 趙仁元신부

… (이하 생략)

■『경향잡지』 1948년 9월호(단행본 1002호) pp.138~139

각처에 신부 이동

충남대전교구가 설정되어 서울교구와 대구교구로부터 파리의방전교회신부들이 대전교구로 들어가게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전에 없던 양교구에 대범위의 신부이동이 다음과 같이 있게 되었다.

… (중략) …

논산 시로 허신부는 성신중학 교유로

… (중략) …

동 한신부는 논산읍으로,

… (이하 생략)

■『경향잡지』 1948년 9월호(단행본 1002호) p.145

論山本堂會長으로있던 羅圭元(요셉) 음六月二十四日 自宅에서 善終이웁기에 敎兄諸位게 복청연도

嗣子 鍾寬 요안, 次子 鍾吉 분도, 兄 圭星 베드루, 弟 圭三 도마

■『경향잡지』 1949년 6월호(단행본 1011호) p.92

논산에 원주교 환영식

거伍월十伍일주일 논산성당에서는 충남교구설정이래 처음으로 시찰오신 원주교 환영회를 대건중학강당에서 내빈다수 참집한중 성대하게 개최하였던바 동석상에 서 가톨릭학생회원과 돈보스고소년회원중 성적우수한자에게 원주교께서 상장과 상품을 주셨다는데 수상자는 학생회 성방지거 설요셉, 전보스고, 소년회에는 윤비리버, 이요셉, 박이고나오, 윤말딩, 제군이라한다.

■『경향잡지』 1949년 8월호(단행본 1013호) p.125

신부들의 이동

… 불란서에 가서 휴양하고 돌아온 전 백동본당 성신부는 충남논산 본당으로 각々 임명되고, 전 대구교구신부로서불란서에귀국하였던 노신부는 거七월하순 다시 한국에 돌아와 충남 대전교구로 향하였다한다.

■『경향잡지』 1949년 11월호(단행본 1016호) p.160

조선 천주교 순교자 현양회 미사

[현양회 회비]

통상회원 一年二백원 이상·특별회원 一年一천원이상·유공회원 단번에 伍만원 이상

조선천주교순교자현양회 목적달성과 동회 「통상회원」, 「특별회원」, 「유공회원」 생사자(生死者)를 위하여 미사성제를 드린 신부와 미사드린 날짜

서산 고신부……………九월 三일

부산 신상도신부……………九월 二十六일

논산 성신부……………十月 十伍일

부산진 정신부……………十月 十六일

수원 윤병희신부……………十月 二十四일

… (중략) …

-영수된 현양회 통상회비-

… (중략) …

논산지방 갈매울공소 회비수합 二천八백원, 동 하마루六백원, 기타七백원,(합八천九백원)(금월총계二만二천四백원) … (이하 생략)

■『경향잡지』 1949년 11월호(단행본 1016호) p.171

각처에 복자참례

거九월二十六일 七十九위복자참례에 각지방교회에서는 여러가지 축하행사가 있었다는 바

… (중략) …

충남 논산교회 대건중학에서는 二十六일 오전九시 동교직원생도 伍백여명이 미사성제에 참여하여, 처음으로 가톨릭의 장엄하고 거룩한 예식을 목격하고 깊은 인상을 받은다음, 학교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의 참례인 九월十六일은 너염으로 휴교중이었으므로 그 때의 축하식을 이날로 연기하여 거행한 바, 설립자 대리본당 성신부의 「김대건의 일생」이란 강연은 처음듣는 외교인들을 크게 격동하였고, 뒤이어 교회음악의 감상, 순교시낭독, 축전 축사의 낭독, 원주교께서 교장에게 보내

신 기념품전달 등 순서로 식을 마치고, 끝으로 태극바닥에 「대건」 글씨도 뚜렷한 「대건떡」을 전교학생에게 나누어, 의미깊은 이 날을 화려했게 지냈다한다. ... (이하 생략)

■ 『경향잡지』 1954년 6월호(단행본 1035호) p.139

신부임명과 전근

위에말한 새신부 두분은 종전대로 군목에 종사하게되었고 작년가을 한국에나와 서울 구룡산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있던 바리외방전교회 최신부는 충남 논산에, 오신부는 충남 예산에, 배신부는 경남 포항으로 각각 임명되어四个月동안 전교훈련을 쌓은다음 다시 구룡산에 돌아와 한국어연구를 당분간 더욱 연구하리라는데, 이는 바리외방전교회규칙이 근년에 새로 개정된바에 의한것이라하며, 이보다 앞서 성신대학 노렌조 전신부는 횡성읍 본당으로, 횡성읍본당 박양운신부는 성신대학으로, 풍수원보좌 이주현신부는 그동안 비어있던 경남 고성固城읍본당으로, 군목 이그리산도 신부는 부산대청동본당보좌로, 평창 백스테파노신부는 부산 범일동본당보좌로 각각 전근되었다한다.

■ 『경향잡지』 1954년 8월호(단행본 1037호) pp.186~187

논산 대건중고 복자신부 침례행사

충남논산본당 대건중고등학교에서는 거七월伍일 동교주보침례를 (복자 안드레아 김신부님의 속명이 대건=大建)크게 장식하였다는바 당일오전九시 원주교의 미사성체에 전교생 八백伍十명과 전교직원 二十六명이 참례, 동十시에 동교직원생도 十三명의견진성사, 동十시반 동교강당에 내외빈 참석중 순교정신 또는 복자김신부께대한문제의 웅변대회, 뒤이어 축하음악회, 오후一시에는 축하기념으로 특별작만한 「대건떡」을 전교생에게분급, 한편 원주교께서는 특별치사와함께 교황청에서보내신 七十六만환의 한은권을 전달하셨다한다. 이로써 중축중인 교사二층(四교실)공사도 착착 진행되어 七월十一일에는 상량식上梁式을 보게되고 八월중순에는 준공되리라는바 논산사회의 많은 기대를 받고있다한다.

■ 『경향잡지』 1954년 11월호(단행본 1040호) p.253

가톨릭학생 웅변대회

성모성년축하 가톨릭학생 웅변대회는 이날 오후삼시부터 동성고등학교강당에서 개최되었는데 서울시는 물론, 멀리 통영, 부산, 대구, 논산 등 각지방본당과 교회경영학교에서 十四명의 연사가 나와 열변을 토하여 전국각지에서 모여든 수천학생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입상된 연사와 연제는 다음과 같은데 一등은 전부 여자인것이 주목을 끌었다. … (이하 생략)

▪『경향잡지』 1955년 4월호(단행본 1045호) p.120

출판물에 협력상태

교회출판사업을 원조하는 의미로 거二月 출판물보급주일을 전후하여 각지에서 걷은 연보금은 속속 본사로 들어오고있는데 거三월초순까지 들어온것은 다음과같이 다른지방의것이 입수되는대로 곧 「성비오十세전」출판을 하리라한다.

종현	一〇五,〇〇〇환	대구회원	一,五〇〇환
의정부	三,〇〇〇 "	연양	三,七〇〇 "
청주	五,〇〇〇 "	왜관	五,〇〇〇 "
가회동	九,五四〇 "	신마산	三,八〇〇 "
명수대	二,七一〇 "	영천	三,〇〇〇 "
미아리	二,三〇〇 "	서귀포	二,〇〇〇 "
안양	三,五〇〇 "	부안	二,一〇〇 "
영등포	一七,〇〇〇 "	광주남동	六,〇〇〇 "
안성	二,一五三환	함평	四,〇〇〇 "
소사	三,二〇〇 "	횡성읍	三,〇〇〇환
인천	二〇,〇〇〇 "	춘천소양	二,〇〇〇 "
양평	五,〇〇〇 "	평창대화	一,五〇〇 "
제기동	一〇,〇〇〇 "	강경	四,五〇〇 "
부산동래	六,〇〇〇 "	논산	六,七三〇 "
정주	四,二〇〇 "	합덕	一〇,〇〇〇 "
	一二,〇〇〇 "		
대구남산	一二,〇〇〇 "	당진	四,〇〇〇 "
		예산	四,二〇〇 "

■ 『경향잡지』 1955년 7월호(단행본 1048호) p.213

논산에 성체거동

충남 논산에서는 거六월十二일주일 오전 九시반 본당 성 신부의 창미사다음 성체거동이 거행되었는데 거동행렬은 성당에서 출발, 대진중고등학교 외곽주위도로를 일주하여 대진중학교정에 가설된 휴감제대에서 강복을 받고 다시 계속하여 본 성당에로 귀환하였다는바 이에 참가한 본당은 천안, 대전, 공주, 부여, 이리, 안대동, 나바위, 강경 등이요, 합창단 伍단체, 참가인원 伍천여명에 달하였으며 행렬이 지나는 동안에는 교통빈번한 큰길에 교통이 차단되어 지나가던 군인들과 여행자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엄숙한 태도로 이 거룩한 거동행렬을 참관하였다한다. 오후에는 논산가톨릭 청년회주최로 각본당친목배구대회가 대진중고등학교구장에 열렸던바 우승은 이리본당, 준우승은 논산본당이였다한다.

■ 『경향잡지』 1955년 8월호(단행본 1049호) pp.249~250

강경 목신부 금경축

충남 강경본당 목신부 Rev. J. Bermond의 사제서품伍十주년축하식은 지난六월二十九일 성베드로·바오로二위중도침례날 오전十시반 강경극장에서 거행되었다는바 대전 원주교 전주 김교구장을 비롯하여 十二명의 내빈신부, 제二훈련소장(대리), 동 훈련소 미수석교무관, 논산군수, 강경읍내 각기관장, 一백여명의 지방유지, 부근교우는 물론이요, 멀리 부산, 마산, 대전, 논산, 이리, 삼례, 안대동, 화산 등지에서도 교우대표들이 참집하여 초만원을 이루었으므로 입장못한 교우들도 여러백명되었다한다. 식순을 따라 제二훈련소군악대의 성가연주, 개회사, 꽃다발 진정, 강경본당, 대전 전주 양 교구대표, 마산본당대표, 원주교, 김교구장, 논산군수, 강경 경찰서장의 순서로 축사가 있은다음 경축신부답사, 목신부만세 대한민국만세 三창으로 끝을 맺고 곧이어 축하음악회로들어가 군악대의 특별연주와 각종의 노래와 여흥이 一시三十分까지 계속되었다. … (이하 생략)

■ 『경향잡지』 1956년 2월호(단행본 1055호) p.75

논산에 루르드 성모 동굴

충남 논산본당 교우들은 동 성당 후보 루르드 성모의 영광을 더욱 높이 고저하

여 伍十여만환을 자담하고 루르드동굴을 성당옆에 축조하였다는바 작년에 처음으로 생긴 천지의 모후침례까지의 기념으로 동굴위 정면에 「천지의 모후」란 큰 글자를 넣었으며, 오랫동안 그곳 본당신부로 계셨고 그후 서울과 인천 수녀원담임으로 계시다가 六·二伍동란때 납치되어 북한억류생활중 귀천하신 율리와노 공신부의 기념비도 아울러 동굴옆에 세웠는데 거년十二月八일 대전 원주교께서 동굴과 성모상의 강복식을 거행하셨다한다.

■『경향잡지』 1956년 6월호(단행본 1059호) p.224

출판물에 협력

가톨릭교회와의 출판을 도움고저하여 거伍월十伍일까지 각처에서 본사에 미리 보내준 금액은 다음과 같은데 이번 여름에 출판할 예정이다.

논산읍 四,伍〇〇환, 유목정리 二,四〇〇환, 예천읍 三,〇〇〇환, 온양 二회분 伍,〇〇〇환-

■『경향잡지』 1956년 7월호(단행본 1060호) p.259

각처에 성체거동

… 충남 논산에서도 六월三일 주일 인근 이리, 군산, 공주 등 각지에서 모여든 교우들과 당지에 있는 훈련소 교우장병들까지 합하여 伍·六천명이 참집한중 성체거동이 장엄하게 거행되었고, 오후에는 각본당 친목 배구대회가 대건중학교 교정에서 있었는데 우승은 군산본당, 二등은 이리본당으로 돌아갔다하며 … (이하 생략)

■『경향잡지』 1956년 11월호(단행본 1064호) pp.415~416

성신대학 도서부와 옷장

한국 주교회의의 결의를 따라 해마다 九월二十六일 복자침례 다음 주일 각지방의 연보금은 성신대학 도서부에 기증하게되었음은 기보한바와 같은데 금년에 거十월十伍일까지 동대학 도서부로 보내온 금액은 다음과 같다 한다.

명동	六二,〇〇〇환	후암동	一二,八二〇환
소사	五,〇〇〇환	구룡산	一〇,五五〇환
돈암동	一三,二四〇환	제기동	七,四七〇환
인천송림	九,二五〇환	백동	二〇,五八〇환
여주	二,五〇〇환	종로	一一,六六〇환
잠실	二,五〇〇환	세종로	一四,三八〇환
명수대	七,四〇〇환	영등포	六,〇〇〇환
해방동	三,六〇〇환	삼각지	三,〇〇〇환
가회동	五,三〇〇환	충주	一〇,〇〇〇환
장호원	九,七三〇환	의정부??	一,六〇〇환
남곡리	一〇,〇〇〇환	청량리	三,一〇〇환
서정리	三,五〇〇환	음성	五,〇〇〇환
용소막	四,〇〇〇환	진주	五,〇〇〇환
이천	三,〇〇〇환	천안	三,〇〇〇환
논산	三,〇〇〇환	청주	八,〇〇〇환
미리내	一〇〇,〇〇〇환	미아리	三,〇五〇환

다른 편으로 동대학에서 각학생들에게 二만환 가격의 옷장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은인들을 구하여 오는중 十月十伍일까지 계속된 은인들은 다음과 같다.

옷장 호수 一一八호 부산 김영일 말구, 一一九호 백동 김환암, 一二〇호 상주 계산동 교우일동, 一二一호 이천 사기소 교우일동, 一二二호 서울 가회동 김근배 요안, 一二三호 서산 안나회

그런데 이렇게 一六〇호까지는 나가야 문제는 해결되리라한다.

▪ 『경향잡지』 1957년 2월호(단행본 1067호) 부록 p.7

경향잡지 제四九권 제一〇六七호 부록

가톨릭信仰强化는 우리殉敎者로! 가톨릭眞理弘布는 우리殉敎者로!

○ 영수된 현향회비

三백환이상은 통상회비

一천환이상은 특별회비

… (중략) …

논산 삼천삼백환 내역 삼백환씩 장방지거, 장아오스당, 장요안, 김다두, 유베로니
까, 이마리아, 장원선시오, 최방지거, 김요안, 주요셉, 염아가다 … (이하 생략)

■ 『경향잡지』 1957년 6월호(단행본 1067호) pp.218~219

신도안에 천주교

충남 논산군 두마면 신도안 新都內 이라하면, 이태조 李成桂가 한양에 도읍하기전에
먼저 이곳에 자리잡고 얼마동안 역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한양으로 옮겨간 곳이다.

현재까지도 그때 주초용으로 운반해다놓은 수백개의 거대한 석재가 「대궐터」라
는 곳에 있고, 「종로터」이니 「인경봉」이니하는 이름도 지금까지 전해오는 곳인데 주
민은 약 삼천호 되지만 종교는 「상제교」를 주로하고 동학, 불교, 공주 계룡산을 이웃
한만큼 「정감록」 신봉자도 많으나 천주교만은 펴이지 못하고 있던중 작년 여름부터
신도안에 사는 신(申景均)씨와 연락이 있게되어 이 기회에 많은이가 천주교를 알게됨
에 따라 열심히 남녀교우들이 희생적으로 전교하며 교리를 가르친 결과 지난 봄에
伍十八명이 영세 입교하였고, 현금 예비자는 一백伍十여명이라는바 이들이 한 곳에
모일 장소가 없으므로 논산본당에서는 신도안에 강당을 짓고저 노력을 시작하였으므
로 성신강림주일엔 재강당에서 침례를 드리리라는데 강당만 지어놓으면 영세입교자
는 계속하리라한다.

■ 『경향잡지』 1957년 7월호(단행본 1072호) pp.234~235

…十二일 오전九시 교황사절 구주교계서 대성당에서 대례연미사를 지내시고 서
주교계서 사도예절을 거행하신 다음 성당 마당에서 영결식이 있어 교우대표 조사, 도
지사, 대구시장의 조사, 외방전교회한국지부대표 논산 성신부의 답사등 순서로 식이
진행된 다음 상복을 한 三十六명의 청년들이 상여를 메는 중 … (이하 생략)

■ 『경향잡지』 1957년 9월호(단행본 1074호) pp.318~319

교회서적 보급상태

작(一九伍六)년 七월초부터 금(一九伍七)년 六월말까지

사도직과 가톨릭운동에 있어서 언제든지 빼놓을수 없는 중대한 문제는 교회서

적의 보급이다. 왜냐하면 교회서적이 안으로는 교우들에게 각기 정도를 따라 교리를 가르쳐 신덕을 굳게하고 열심생활을 격려하며 냉담을 방지하고, 밖으로는 가톨릭의 진리를 선전하며 가톨릭에 대한 그릇된 선입관을 타파하여 결국 영세입교케 하는 연고이다.

이제 지난 일년동안 본사에서 직접 교회서적을 주문하여간 본당과 금액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각 지방의 교우총수며, 문화정도, 도시와 촌락의 구별 등 참작할것이 여러가지 있겠지만, 서로 대등한 지방을 비겨본다면 교회서적 보급에 대한 열성이 대체로 드러나있다.

... (중략) ...

본당이름	금액
... (중략) ...	
논산	二〇八,〇三〇
... (이하 생략)	

▪ 『경향잡지』 1958년 2월호(단행본 1079호) p.38

○ 영수된 현양회 회비

一천환씩

... (중략) ...

논산 김현용 김기성 이봉규 정경함공일 김인성(합十一만八천七백환)【八〇면에서계속】

▪ 『경향잡지』 1958년 2월호(단행본 1079호) p.80

伍백환씩

... (중략) ...

논산지발 송말다 정젤마나 김마리아 박도마 이발바라 ... (이하 생략)

▪ 『경향잡지』 1958년 4월호(단행본 1081호) p.169

여하간 작일년 동안 많은 영세자를 낸 본당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드백명 이상 ... (중략) ... 논산 三二三 ... (이하 생략)

■『경향잡지』 1958년 4월호(단행본 1081호) p.183

... 「구약사기」 중권 출판을 돕기 위하여 그다음 본사에 보내온 금액과 지방은 다음과 같다. ... (중략) ... 논산 伍,〇〇〇환 ... (이하 생략)

■『경향잡지』 1958년 5월호(단행본 1082호) p.186

○ 영수된 현양회 통상회비

... 一천환씩 논산 박학래, 박홍래, 박정석, 김중역, 서기석, 전경현, 주대월(원), 백중수 ... (이하 생략)

■『경향잡지』 1958년 6월호(단행본 1083호) p.233

(二) 지난달에 답지한 신학교 원조성과

... (중략) ...

(10) 논산본당 안나부인회 삼만환 ... (이하 생략)

■『경향잡지』 1958년 11월호(단행본 1088호) p.435

(二) 성신대학 도서부를 위한 성금(十月 十일까지의 도착문)

... (중략) ...

(31) 논산본당 伍천七백환 ... (이하 생략)

■『경향잡지』 1959년 2월호(단행본 1091호) p.47

(二) 지난달에 답지한 신학교 원조성과

... (중략) ...

(7) 논산본당 침목회 三천三백환 ... (이하 생략)

■『경향잡지』 1959년 2월호(단행본 1091호) p.48, pp.52~53

지방 지방교회의 모습 (一)

=작 一九伍八년의 회고=

기보한 바와 같이 본사에서는 작년말 국내 모든 본당으로 공문을 보내어 다음에 나오는 숫자를 문의하였던바 이제 답장이 들어오는대로 독자들에게 소개하는바이다. 깨알 같은 숫자 속에는 본당 신부님들의 심혈이 서리어 있다. 그중에는 신설된지 얼마 안되는 본당도 있고 또 본당신부의 이동이 잦은 곳도 있음은 물론이다.

... (중략) ...

시·도별	교회 이름	본당신부	교우 수효	대인 영세자	열교인 회두자	영세 예비자	경향잡지독자	몇명에 —부씩
충남	천안	셀레스디노 구 (코이오스)	二,八一九	一七一	六〇	二〇二	二一六	一三
	온양	마테오 한도준	二,〇七八	一三五	二	一九二	一八七	一一
	공세리	요왕 서 (시에라판)	一,九三四	五〇	丨	一六八	二三九	八
	서산	요왕 오 (올리비에르)	三,一一三	一六八	九	一九五	一五五	二〇
	홍성	요왕 백 (블랑크)	九八一	一三二	五	八九	九九	一〇
	공주	아오스딩 방 (패일렛)	三,〇〇二	二五三	三	二〇〇	二二五	一三
	논산	베드루 성 (성재)	二,七一二	三九五	一〇	二〇〇	一三〇	二一
	금사리	로벨도 최 (제제구)	二,〇六五	三〇九	丨	五〇	二〇〇	一〇

... (이하 생략)

■『경향잡지』 1959년 2월호(단행본 1091호) p.59

부기

대구에 꼬미씨움 승격 신청중이며 대전교구(논산)에 꾸리아 조직 신청중이고 청주교구에는 꼬미씨움 설립 보류중에 있다(꾸리아 3개중 2개도 보류). 주교님 착좌를 기다림.

■『경향잡지』 1959년 2월호(단행본 1091호) p.77

○ 영수된 현양회 통상회비

... (중략) ...

논산 宋말다, 朴도마, 李발바라, 金마리아, 鄭안젤라, 河안젤라 … (이하 생략)

■『경향잡지』 1959년 4월호(단행본 1093호) p.144

금년에 벌써二个 꼬미씨움과(대구, 왜관) 伍개 꾸리아가 설립되었다. 새로 설립을 본 꾸리아는 다음과 같다.

▷ 二月二十八日 진주 꾸리아 ▷ 三月八일 영등포 꾸리아

▷ 三月十일 논산 꾸리아(루르드의 성모)

… (이하 생략)

■『경향잡지』 1959년 6월호(단행본 1095호) p.190

순교기념관 건설에 의연= 三천환 논산노인친목회, 一만三천환 예산삼거리공소, 伍천환 예산삼교공소, 伍만七천환 부산청학동—천환 중평교회, 一만—천환 문산교회, 伍백환 二명, 二백환 二명. (합 九만—천四백환)

■『경향잡지』 1959년 11월호(단행본 1100호) 별지

가톨릭 大學 圖書館 建立 寄金

… (중략) …

論山 二千圓 … (이하 생략)

■『경향잡지』 1960년 11월호(단행본 1112호) p.33(547)

대전교구 내 사회사업 공로자 표창

새 정부수립 경축일을 마지하여 충남「김」도지사는 도내 여러 사회사업 공로자들을 표창하였는데 대전의 충남 애육원장「오 요셉」신부님과 논산읍 소재 성 요셉 양로원장「성 베드루」신부님에게도 표창장이 수여되었다 한다.

■『경향잡지』 1960년 11월호(단행본 1112호) pp.33~34(547~548)

논산본당「성 베드루」신부 종교 교양 강좌

새 공화국을 마지하여 민중의 참된 지팽이로서 훌륭한 경찰이 되도록 인도하려는 첫 움직임으로써 강경 경찰서『안』서장은 논산 본당「성 베드루」신부님을 초청하

여 관하 七十여명의 경찰관들에게 종교 교양 강좌를 개최하였다 한다.

■ 『경향잡지』 1960년 11월호(단행본 1112호) p.43(557)

160년도 한국 천주교회 교세통계표

◎ 대전대목구

본당	대인영세	교우자녀영세	신자수
대전	296	129	3,732
목동	75	6	702
조치원	93	82	849
천안	99	68	2,070
온양	136	90	2,190
공세리	5	99	2,095
합덕	50	52	4,459
당진	93	76	2,522
서산	86	67	3,216
홍성	123	46	1,059
예산	210	179	3,631
공주	231	126	3,230
논산	161	107	2,746
마산	44	34	1,116
강경	205	55	1,889
규암	88	56	1,481
금사리	45	89	2,102
장항	206	82	2,080
성환	17	36	820
합계	2,267	1,489	41,989

■ 『경향잡지』 1960년 12월호(단행본 1113호) p.35(605)

대전 교구의 레지오·마리에

대전 교구는 다른 교구에 비해, 「레지오·마리에」 운동이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

지만, 금전 논산과 대전에 一개「꾸리아」가 설립되었고, 교구내 열 여덟 본당 중 일곱 본당이 이미「쁘레시디움」을 조직하여 사제를 도아 드리는 평신도 사도직에 훌륭한 성과를 올리어, 앞날의 전교활동에 큰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경향잡지』 1960년 12월호(단행본 1113호) p.35(605)

성 바오로회「오 말지나」수녀 표창

지난 달(一〇월三日), 충청남도에서, 사회사업 공로자 표창식이 있었는데, 논산 천주교회에서 경영하는「성 요셉 양로원」창설당시 부터 오늘날 까지 정성깊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성 바오로회」의「오 말지나」수녀님에게, 표창장과 무궁화 금 메달을 수여하였다 한다.

■『경향잡지』 1960년 12월호(단행본 1113호) p.48(618)

대신학교 도서관을 위한 기부금 (一九六〇년 一一월 一〇일 현재 =환 단위)

… (중략) …

논산 三,〇〇〇환 …(이한 생략)

■『경향잡지』 1961년 8월호(단행본 1121호) p.30(430)

성대한 본관 축성식

논산 대건 고등학교에서

지난 七월 伍일 논산 대건 고등학교에서는 준공된 본관의 축성식을 성대히 거행하였다. 대건 고등학교는 호남 지방의 유일한 인문계 사립고등학교로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여오던 중, 교사의 전모를 일신하기 위하여, 금년 三월에 본관 증축 공사에 착공하여 伍월 말에 그 준공을 보게된 바, 이는 동교 설립자이신 대전교구「원」주교님과 논산 본당「성」신부의 적극적인 후원과 주선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한다.

■『경향잡지』 1961년 8월호(단행본 1121호) p.54(454)

일구육일년도 한국 천주교 교세 통계표 {서울대목구, 대전대목구}

대전대목구

본당	대인영세	교우자녀영세	신자수
대전	278	146	4,245
목동	97	42	895
조치원	27	66	561
천안	100	112	2,224
성환	25	18	749
온양	103	123	2,489
공세리	42	91	2,102
예산	109	146	3,731
홍성	75	48	1,172
서산	79	132	3,316
당진	77	76	2,624
버그네	38	69	1,880
합덕	38	53	2,268
공주	164	135	3,387
논산	123	145	2,952
마산리	31	54	1,223
강경	86	68	1,976
규암	60	50	1,513
금사리	30	71	2,174
장항	156	63	2,179
(1961)합계	1,737	1,708	43,660
(1960)합계	2,267	1,489	41,989

… (이하 생략)

■ 『경향잡지』 1961년 9월호(단행본 1122호) pp.32~33(490~491)

「성」 신부에게 감사장

「윤」 충남 지사로 부터

지난 七月 一〇일 충남 지사실에서 논산 본당 주임 「성 베드루」 신부에게, 「윤 태호」 충남 지사로부터 감사장이 수여되었다.

「성」신부는 재한 二七년 중 一三년간을 논산 본당 주임으로 재임하시면서, 매마
른 이 땅의 영혼들을 돌보는 한편 양로원, 나병환자 요양소 및 논산 대건 중고등학교
등을 설립하였고, 극빈자와 피난민들을 돕는 일을 평생의 큰 낙으로 삼아왔으며, 교육
사업과 사회사업에 공헌한 바 큼으로 도민들의 칭찬을 받고 있다 한다.

■『경향잡지』 1961년 11월호(단행본 1124호) p.50(626)

신축된 논산 본당

축성식 거행

그간 신축 공사중이던 논산 본당이 준공을 보게되어, 지난 一〇월 一一일 상오
九시 三〇분 대전교구장「원」주교의 집전으로 강복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한다.

■『경향잡지』 1962년 2월호(단행본 1127호) p.50(110)

해성 여자 중·고교

신학기부터 개교

논산 본당「성 베드로」신부의 주선으로 지난 해 一二월 三〇일 문교부로부터 해
성 여자 중·고등 학교의 정식 설립 인가가 나와서 오는 三월 신학기부터 개교하리라
한다. 금번 개교하게되는 해성 학교는 대건 중·고등 학교의 자매 학로서 금년 一월 중
에 중등부 二학급, 고등부 二학급을 모집 중이며, 교사는 임시 대건 중·고등 학교 목
조 二층 건물을 사용하리라 한다.

■『경향잡지』 1962년 3월호(단행본 1128호) p.37(155)

신부 왕래

◎ 귀임

「한 요안」신부(중앙 협의회)〈「미국」서〉

「명 방지거」신부(강릉 본당)〈「애란」서〉

「구」신부(천안본당)〈「프랑스」서〉

◎ 휴양

「성 베드로」신부(논산 본당)〈「프랑스」로〉

「노 로제리오」신부(예천 본당)〈「프랑스」로〉

■『경향잡지』 1963년 8월호(단행본 1145호) p.19(413)

☆ 첫 영성체자 四九명

「논산 본당」서

논산 본당에서는 지난 六월 一六일(성체 첫째 다음 주일날) 주임 「노」 신부 집전으로 드리는 七시 三〇분의 아동 미사 때 四九명의 첫영성체자가 있었다. 본당 창설 이래 처음으로 이처럼 많은 아동들의 첫영성체자가 있었는데, 이는 「바오로」 수녀회의 三명의 수녀와 교리반 선생의 헌신적 노력과 지도의 힘이 컸다 한다.

■『경향잡지』 1963년 12월호(단행본 1149호) pp.12~13(608~609)

◇ 「지·오·쵸」 투사 二七명 선서-

「대전 교구」

대전 교구내 「가톨릭 노동 청년회」(지·오·쵸)의 대전 주교좌 「섹션」에서는 「오 요셉」(기전)신부 집전으로 남자 투사 一〇명, 여자 투사 一七명이 선서하였으며, 한편 지난 一월 二일에 논산 「섹션」에서는 「두 레나도」 신부 집전으로 선서하였다.

■『경향잡지』 1964년 7월호(단행본 1156호) p.13(339)

나병 환자 구호에 진력

논산 본당 「노」 신부

논산 본당 주임 「노 베드루」 신부는 나병 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성광원(星光園)에 가옥 三〇동과 황무지 二만 二천 三백 여평을 사주어 자활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앞으로 七년 계획으로 도와줄 성광원은 六년전 음성 나병 환자 伍九명이 정착하여 구호 양곡으로 근근히 연명하고 있었다 한다.

■『경향잡지』 1964년 8월호(단행본 1157호) p.10(386)

신부회의 - 인천교구

인천 교구의 신부 회의가 六월 二九, 三〇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 논산의 「손 요안」(만재) 신부와 이천의 「김 다미아노」(종진) 신부가 오전 중에 「예절에 관한 교황령」에 대한 강의를 하였고, 오후에는 「교우를 향해서 드리는 미사」, 「제헌 행렬」, 「공소에서 드리는 신공」 등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 『경향잡지』 1965년 7월호(단행본 1168호) p.33(355)

신부 이동

〈대전 교구〉(一九六伍年 六月 一〇 일부)

신부명	계시던곳	가신곳
이 분도(인하)	공주 주임	대흥동 주임
백 요왕	강경 주임	예산 주임 대리
유 방지거(인성)	당진 주임	공주 주임
변 시릴로(갑선)	예산 보좌	당진 주임
노 베드루	논산 주임	조치원 주임
전 야고버	대흥동 보좌	강경 주임
손 요안(만재)	논산 보좌	논산 주임
방 아오스딩	조치원 주임	포항 예수 성심 시녀회 지도신부

… (이하 생략)

▪ 『경향잡지』 1966년 2월호(단행본 1175호) p.49(103)

신부 이동

〈대전 교구〉(一九六六년 一, 六 및 一〇)

신부명	계시던곳	가신곳
백 요왕	강경 주임	예산 주임
민 요셉	어학 연구 중	예산 보좌
윤 바오로(여흥)	새로 서품	논산 보좌
김 방지거(순호)	새로 서품	대흥동 보좌
유 야고버(봉운)	교구 경리	소년 직업 보도소장 겸임
정 에밀리오	예산 주임	휴양

… (이하 생략)

▪ 『경향잡지』 1966년 4월호(단행본 1177호) p.38(202)

【신부 이등】

〈대전 교구〉

신부명	계시던곳	가신곳
방 아오스딩	송정 보좌	공세리 주임
박 바오로(노열)	공세리 주임	성환 주임
김 다두(영환)	규암 주임	온양 주임
오 요왕	서산 주임	규암 주임
유 누수(성숙)	홍성 주임	서산 주임
윤 미가엘	천안 보좌	홍성 주임
신 도민고(균식)	연무대 주임	문창동 주임(신설)
김 비리버(영곤)	금사리 주임	장항 주임
윤 바오로(여흥)	새로 서품	논산 보좌
김 방지거(순호)	새로 서품	대흥동 보좌
한 마테오(도준)	온양 주임	타 교구로 전출

{ 연무대 본당은 논산 본당에서, 금사리 본당은 규암 본당에서 } 임시 관할

▪ 『경향잡지』 1966년 12월호(단행본 1185호) p.19(615)

당진 성당 신축에 찬조 연보

당진 본당 변신부는 지난 七月 十일 당진 성당 신축 모금을 위하여 명동성당으로부터 시작하여 각 본당을 방문하며 교우들의 협조를 요청하였는데 각 본당에서는 동 성당 신축 기금으로 다음과 같이 찬조연보를 거두어 보냈다.

명동성당 - 四四,〇〇〇원

공주성당 - 伍,〇一伍원

서산 - 一六,〇〇〇원

논산 - 二四,伍〇〇원

예산 - 二二,伍〇〇원

천안 - 二〇,〇〇〇원

▪ 『경향잡지』 1968년 1월호(단행본 1198호) p.36(36)

성 바오로 수도회 착복식

지난 一二월 八일 상오 一〇시 서울 미아동에 있는 성 바오로 수도회에서는 지부장 신부의 집전으로四名의 수사 착복식이 있었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 요한(택준) - 서울 혜화동

이 요셉(종윤) - 서울 세종로

민 프란치스코(병훈) - 논산

이 가시미로(신우) - 부강

▪ 『경향잡지』 1968년 2월호(단행본 1199호) p.34(108)

【신부 이동】

〈대전 교구〉

신부명	계시던곳	가신곳
원종덕(베드로)	새로 서품	대흥동 보좌
김병재(바오로)	"	"
윤주병(베드로)	"	천안 보좌
김종국(바르나바)	"	공주 보좌
윤석빈(루까)	새로 서품	예산 보좌
구자오(베네딕토)	"	논산 보좌
이계창(아우구스티노)	"	서산 보좌
변갑선(치릴로)	당진 주임	대전 대동 주임
김순호(프란치스코)	대흥동 보좌	당진 주임
유재식(안셀모)	논산 보좌	연무대 주임
조병기(바오로)	대흥동 보좌	서천 주임(신설 본당)

… (이하 생략)

▪ 『경향잡지』 1969년 2월호(단행본 1211호) p.28(102)

【신부 이동】

〈대전 교구〉

신부명	계시던곳	가신곳
방 아우구스티노	휴양	광천 주임(새 본당)
태 올리비에	대천 주임	금사리 주임
강 요한	성남동 보좌	유구 주임(새 본당)
이계창(아우구스티노)	서산 보좌	대천 주임
윤여홍(바오로)	조치원 주임	합덕 주임
김동억(바오로)	청양 주임	성환 주임
윤영균(미카엘)	홍성 주임	문창동 주임
원종덕(베드로)	대흥동 보좌	홍성 주임
윤석빈(루카)	예산 보좌	청양 주임
박노열(바오로)	성환 주임	장항 주임
최 로베르토	합덕 주임	상서국장
윤예원(토마)	금사리 주임	은퇴
김종국(바르나바)	공주 보좌	서산 보좌
구자오(베네딕토)	논산 보좌	예산 보좌
김영교(베드로)	새로 서품	논산 보좌
김영곤(필립보)	장항 주임	조치원 주임
고일봉(가브리엘)	새로 서품	군중

… (이하 생략)

▪ 『경향잡지』 1969년 8월호(단행본 1217호) p.23(397)

【서울】 한국 가톨릭 중고등 학교 교장회 제11차 정기총회:6월 27일, 논산 대건 중고등 학교에서, 토의 주제=교리 교재 편찬 문제, 가톨릭 교육 현장 강령 심의 문제, 가톨릭 중학교와 고등학교 분리와 입시 방법 문제, 동회 명칭 변경 문제, 교장 19명과 읍서버 30여 명 참석 [사진:표지 2면]

▪ 『경향잡지』 1969년 8월호(단행본 1217호) p.25(399)

【대전】 논산 대건 중고등 학교 교리 경시 및 체육대회:7월 5일 본교 수호 복자 김 대건 신부 축일을 맞이하여.

▪ 『경향잡지』 1969년 10월호(단행본 1219호) p.25(499)

【대전】논산 본당 첫 영성체:8월 10일, 56명. [사진:표지 3면]

▪ 『경향잡지』 1970년 2월호(단행본 1223호) p.51(151)

【신부 이동】

〈대전 교구〉

신부명	계시던곳	가신곳
성 베드로	홍산 주임	서울 성가 수녀원 지도
변갑선(치렐로)	대동 주임	가톨릭대학 신학부 교수
조성옥(요한)	군목	대동 주임
고 야고보	태안 주임	홍산 주임
김순호(프란치스코)	당진 주임	군목
구자오(베네딕토)	예산 보좌	당진 주임
김병재(바오로)	대흥동 보좌	태안 주임
김영교(베드로)	논산 보좌	대흥동 보좌
이종린(요아킴)	새로 서품	대흥동 보좌
이종대(요셉)	새로 서품	예산 보좌
김기룡(요한)	새로 서품	논산 보좌
김종국(바르나바)	규암 주임	성 요셉 병원장 겸임

… (이하 생략)

▪ 『경향잡지』 1970년 9월호(단행본 1230호) p.98(898)

【신부 이동】

〈대전 교구〉

신부명	계시던곳	가신곳
서 질베르토	어학 공부	논산 보좌
박 아우구스티노	어학 공부	삼교 보좌

… (이하 생략)